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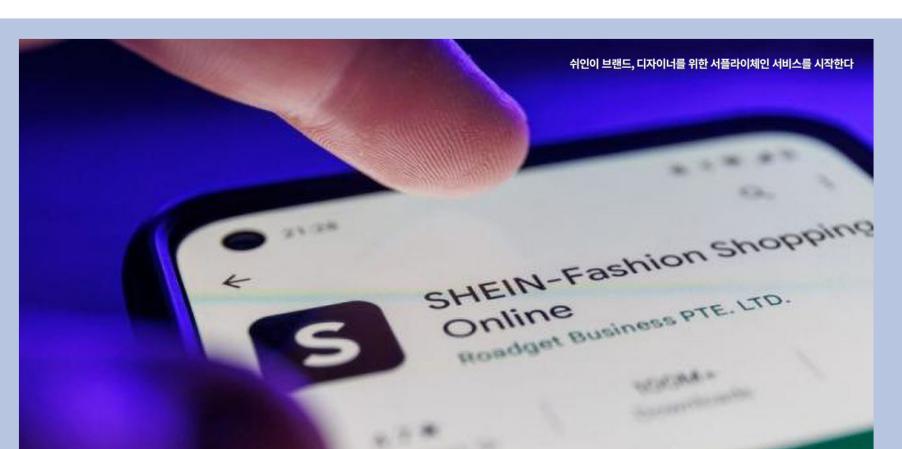
H&M과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을 전하는 황록 디자이너

FASHION H&M,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새로운 주인공 발탁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디자이너 황록 'ROKH'⁽¹⁾

H&M이 다음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로 한국 디자이너인 황록의 'ROKH'를 선정했다. 황록 디자이너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영국 노팅엄에서 성장기를 지냈고 센트럴 세인트 마틴 석사 졸업소에서 우승했다. '셀린트', '골로에', '루이비통'을 거쳐 자신의 이름을 딴 'ROKH'를 런칭했으며, 2년 만에 LVMH 프라이즈 특별상, 3년 만에 파리패션위크 쇼를

선보였다. 올해는 'H&M'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로 선정되어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록은 여성스러운 옷에 거친 단면을 더하거나 목직한 외투에는 가벼운 소재를 섞는 등 완급조절과 균형감각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스타일리시하고 클래식한 큐레이팅 에디션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H&M X ROKH 컬렉션은 더블 레이어 트렌치 코트, 미디 기장에서 미니 드레스로 변신 가능한 블랙 드레스, 정교한 디테일의 더블 벨트, 오피스 스타일의 백 등 제품을 레이어드하고 탈부착해 다양한 디테일의 묘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4월 18일 일부 매장 및 H&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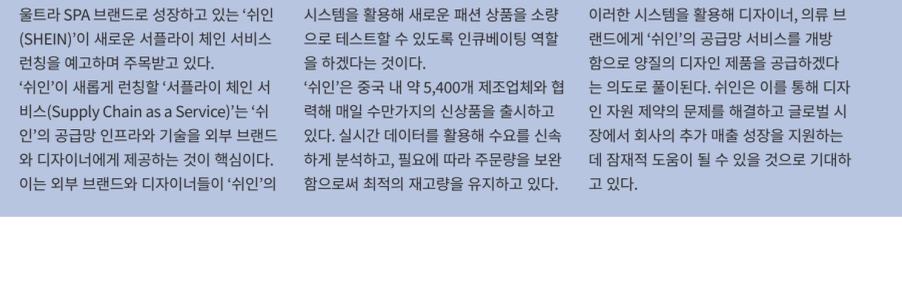
쉬인이 브랜드, 디자이너를 위한 서플라이체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FASHION 'SHEIN',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런칭⁽²⁾ 브랜드, 디자이너에게 '서비스로서 공급망' 개방

올트라 SPA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쉬인(SHEIN)'이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런칭을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쉬인'이 새롭게 런칭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Supply Chain as a Service)'는 '쉬인'의 공급망 인프라와 기술을 외부 브랜드와 디자이너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외부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쉬인'의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패션 상품을 소량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쉬인'은 중국 내 약 5,400개 제조업체와 협력해 매일 수만가지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주문량을 보완함으로써 최적의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에게 '쉬인'의 공급망 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양질의 디자인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쉬인은 이를 통해 디자인 자원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의 추가 매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잠재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JO 셀프리지시 생성형 광고 캠페인

3D DIGITAL 미국 소매업체, AI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지⁽³⁾ 생성 AI, 글로벌 기업 이익 2조 6천억~4조 4천억 달러 창출

미국 소매산업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의 보고에 따르면 로우스(Lowe's), 월마트, 빅토리아시크릿, 렌트더런웨이와 같은 업계 거대 기업이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를 생성하는 만큼 소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맥킨지 역시 소매 및 소비자 부문에서 생성 AI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고객 서비스에서 공급망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AI가 다양한 운영 측면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생성 AI가 글로벌 기업 이익에서 연간 2조 6천억~4조 4천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런던 의류 수선 및 수리 플랫폼인 'SOJO'는 최근 셀프리지에 오프라인 매장 개점을 기념해 AI 생성 캠페인을 진행했다. 셀프리지 백화점과 거대 재봉틀, 실을 시로 작업해 시선을 모았다. 또 매장에서 고객 가상 체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AI 기술이 리테일 서비스 변화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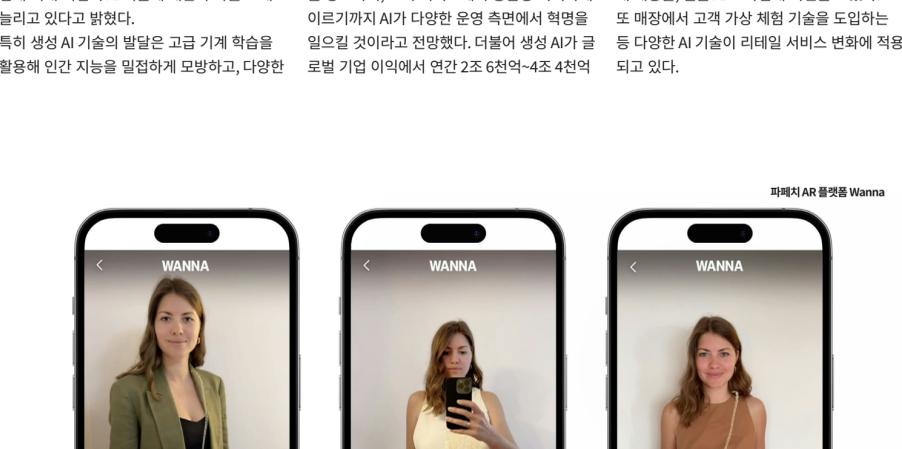
파페치 AR 플랫폼 Wanna

3D DIGITAL 파페치, AR 플랫폼 Wanna 핸드백용 가상 체험 솔루션⁽⁴⁾ 가상 착장 룩 경험 및 의상과 다양한 코디도 가능

파페치가 그들 산하 증강현실(AR) 체험 플랫폼 워너(Wanna)에 VTO(가상 체험) 솔루션을 핸드백까지 확대했다. 파페치는 증강 현실 기술 기업 워너를 인수한 후 지난해 6월 '발렌티노'와 협업해 가상 체험에 대한 고객 니즈를 접수했다. 메종 발렌티노의 가상 착장에 대한 고객 반응이 긍정적이지,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번에는

핸드백까지 확장했다. 메종 발렌티노는 레드투 웨어, 남성복 컬렉션에 이어 지난 추동시즌에는 액세서리 라인인 발렌타이까지 가상 착장 경험을 제공했다. 파페치는 의류 브랜드에서 가상 착장 반응이 좋아 핸드백까지 확장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핸드백용 가상 체험 솔루션은 고객이 구매 전 가방을 가상으로 착용해 보고 의상과 코디,

언제 어디서나 핏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가상 피팅용 시장 규모는 2022년 40억 3,000만 달러로 평가되었고 지난해는 47억 9,000만 달러, 오는 2030년에는 183억 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페치 외에도 옥스 네타포르테도 남성복 사이트 미스터 포터에 가상 시착 기술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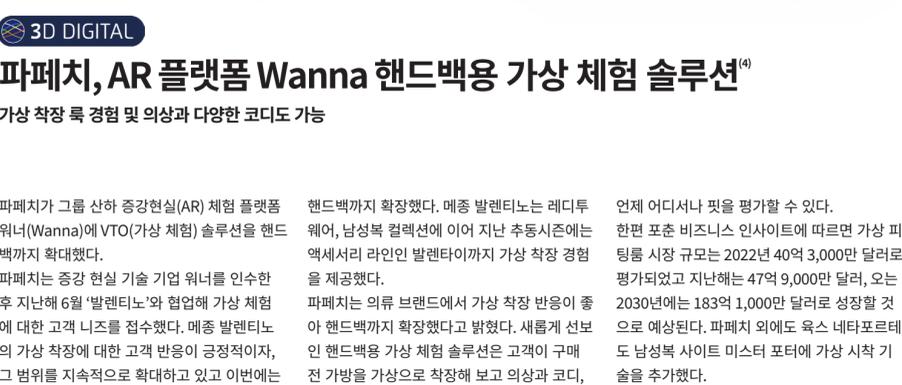
'아디다스' 엘티밋 365 Twistweave

TEXTILE 아디다스, 엘라스틴 프리 스트레치 스포츠웨어 개발⁽⁵⁾ 혁신적인 니트, 우븐 구조를 사용하는 Twistknit

엘라스틴 소재를 함유하지 않고 신축성을 더한 스트레치 스포츠웨어가 있다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아디다스'가 엘라스틴을 활용하지 않고 신축성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소재 트위스트니트(Twistknit) 및 트위스트웨브(Twistweave)를 개발했다. 엘티밋365 제품군으로 선보인 이 제품은 섬유 수준에서 트위스트 니트나 꼬임을 더해 신축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원사가 감겨져

거나 꼬여지는 변형 단계를 거친 후 직물 구조 내에서 마이크로 스프링처럼 작동함으로써 신축성을 갖는다. 또 유연성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고 의류의 전체적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동을 제공한다. 아디다스는 트위스트니트, 트위스트웨브 소재를 활용한 엘티밋365 제품은 소재의 전체 무게와 밀도를 줄이면서 골퍼에게 더 나은 동작 범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에는 일부 남성, 여성 제품에 적용됐고 향후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매디건 '아디다스' 의류 부문 글로벌 이사는 "성능을 주도하는 의류 제품군은 골퍼들이 코스에 최고 수준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했다. 트위스트니트, 트위스트웨브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계 섬유 수출 TOP5국은 어디

TEXTILE 세계 5대 섬유 수출국은 어디?⁽⁶⁾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방식이 핵심 경쟁력

패션, 홈 데코 산업과 밀접한 세계 섬유시장,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수출국은 어디일까? 더비존스리서치컴퍼니는 세계 섬유 시장이 지난해 6,380억 3,0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고 추산했고 올해부터 연평균 복합 성장률 7%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시장을 장악했으며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갖춘 섬유 기업들이 시장을 리드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환경 보존과 윤리적인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패션 소매 기업으로는 The TJX, 인디텍스 그룹, 겐을 꼽았다.

그렇다면 세계 섬유 수출 탑 5국은 어디일까? 1위는 중국으로 세계 섬유 수출의 32.2%를 차지하며 2022년 기준 3,03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2위는 세계 섬유 수출 비중의 6.13%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 3위는 베트남(5.1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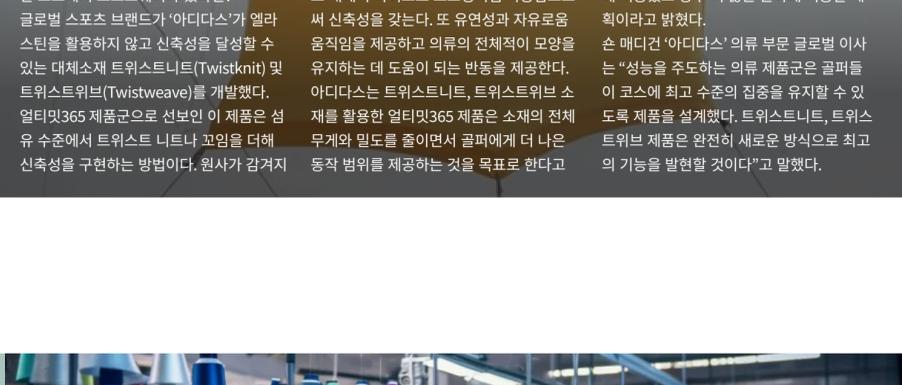
전세계 섬유 수출 TOP5국은 어디

TEXTILE 세계 5대 섬유 수출국은 어디?⁽⁶⁾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방식이 핵심 경쟁력

패션, 홈 데코 산업과 밀접한 세계 섬유시장,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수출국은 어디일까? 더비존스리서치컴퍼니는 세계 섬유 시장이 지난해 6,380억 3,0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고 추산했고 올해부터 연평균 복합 성장률 7%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시장을 장악했으며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갖춘 섬유 기업들이 시장을 리드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환경 보존과 윤리적인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패션 소매 기업으로는 The TJX, 인디텍스 그룹, 겐을 꼽았다.

그렇다면 세계 섬유 수출 탑 5국은 어디일까? 1위는 중국으로 세계 섬유 수출의 32.2%를 차지하며 2022년 기준 3,03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2위는 세계 섬유 수출 비중의 6.13%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 3위는 베트남(5.18%), 4



전세계 섬유 수출 TOP5국은 어디

TEXTILE 세계 5대 섬유 수출국은 어디?⁽⁶⁾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방식이 핵심 경쟁력

패션, 홈 데코 산업과 밀접한 세계 섬유시장,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수출국은 어디일까? 더비존스리서치컴퍼니는 세계 섬유 시장이 지난해 6,380억 3,0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고 추산했고 올해부터 연평균 복합 성장률 7%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시장을 장악했으며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갖춘 섬유 기업들이 시장을 리드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환경 보존과 윤리적인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패션 소매 기업으로는 The TJX, 인디텍스 그룹, 겐을 꼽았다.

그렇다면 세계 섬유 수출 탑 5국은 어디일까? 1위는 중국으로 세계 섬유 수출의 32.2%를 차지하며 2022년 기준 3,03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2위는 세계 섬유 수출 비중의 6.13%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 3위는 베트남(5.18%), 4



전세계 섬유 수출 TOP5국은 어디

TEXTILE 세계 5대 섬유 수출국은 어디?⁽⁶⁾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방식이 핵심 경쟁력

패션, 홈 데코 산업과 밀접한 세계 섬유시장,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수출국은 어디일까? 더비존스리서치컴퍼니는 세계 섬유 시장이 지난해 6,380억 3,0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고 추산했고 올해부터 연평균 복합 성장률 7%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시장을 장악했으며 친환경 원료 도입과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갖춘 섬유 기업들이 시장을 리드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환경 보존과 윤리적인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패션 소매 기업으로는 The TJX, 인디텍스 그룹, 겐을 꼽았다.

그렇다면 세계 섬유 수출 탑 5국은 어디일까? 1위는 중국으로 세계 섬유 수출의 32.2%를 차지하며 2022년 기준 3,03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2위는 세계 섬유 수출 비중의 6.13%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 3위는 베트남(5.18%), 4